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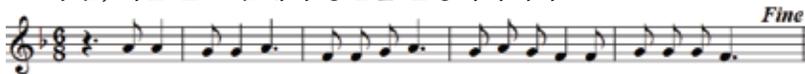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4-5)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17세기경, 비잔틴 미술관, 아테네, 그리스

[제1독서]..... 사도 9,26-31

[화답송] 시편 22(21),26ㄴ-27.28과 30ㄱㄴ,30ㄷ-32
(© 26ㄱ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 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요한 15,1-8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5] 나는 포도나무요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 파견성가: [132] 감사의 송가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 4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 6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 7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 grower.
He takes away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and every one that does he prunes so that it bears more fruit.
You are already pruned because of the word that I spoke to you.
Remain in me, as I remain in you.
Just as a branch cannot bear fruit on its own
unless it remains o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remains in me and I in him will bear much fruit,
because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Anyone who does not remain in me
will be thrown out like a branch and wither;
people will gather them and throw them into a fire
and they will be burne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for whatever you want and it will be done for you.
By this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and become my disciples.”

묵상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비유를 통하여 당신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버리고, 결국 잘려 나가 불에 태워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뿌리에서 얻은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으며 나무에 더 단단히 붙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먼저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태도와 판단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일어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바르나바가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설교하며 그리스께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억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실천을 이끌어 냅니다.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라고 권고합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관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How are you?”



어느새 부활 시기도 제5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부활 성야 미사를 통하여, 부활초로부터 우리들에게 옮겨 붙은 그분의 빛은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채 5주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벌써 밝게 타오르던 그분의 빛을 잃어버려, 마음속이 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괴롭히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유혹’이라는 바람 앞에서, 어떻게든 그 빛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오는 빛을 잃어버린 분들도, 또 위태로운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옮겨붙은 불은 종종 꺼질지 몰라도, ‘빛’ 자체이신 ‘그분’이라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면서 빛을 잃어버리거나, 그 빛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을 옮길 수 있는 ‘심지’를 들고, ‘빛’ 이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고 마는 ‘빛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빛’ 이신 그분께로 말입니다. 물론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빛’ 만 믿고, ‘빛’ 이신 그분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분들도, 빛이 꺼져가는 분들도, 또 빛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두 ‘빛’ 이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남은 부활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가장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How are you?”라는 인사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 영어 덕분에, “How are you?”라는 인사에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처음 마트에 갔던 때로 기억됩니다.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장을 보러 갔는데, 사실 제 마음은 물건보다도, 조금 이따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계산대 앞에서 있는 제게, 계산원이 물었습니다.

“How are you?”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병아리” 하시면, 선생님을 쫓아가는 아이들이 “삐약삐약” 하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저는 얼은 미소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훈련된 대답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이라는 말까지는 입에서 나왔지만, 저는 차마 계속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How are you?”라고 물었던 계산원은 제가 아니라,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How are you?”라는 인사는 상대방의 대답을 원하는 “어떻게 지냈어?”라는 인사보다는 “안녕하세요?”라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에 적응한다는 명목 아래, 언제부터인가 “How are you?”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 조금은 이상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미국에 사셨다면 어떻게 인사하셨을까?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How are you?”

그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제와 레위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칠 때, “How are you?”라는 물음과 함께, 눈도 마주치고, 손도 잡아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마귀가 들린 것 같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How are you?”라는 인사만 남긴 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건네시는 “How are you?”라는 인사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그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들 또한 많은 전통과 문화와 관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전통과 문화와 관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처럼 선한 눈으로 보고, 그분처럼 섬세한 귀로 듣고, 그분처럼 너그러운 입으로 말하고, 그분처럼 따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신부님은 영어를 좀 못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또 저 신부님은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을 보고, 손을 잡고, “How are you?”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예수님께서서는 아마도 당신의 뿔려있는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Jr. High BASH 2018

FOLLOW



2018 likes #Diocese of Arlington #Jr. High #faith #friends #fun



Andrew Oh, Adult Chaperone

BASH was a well-attended event for the youth of the Diocese of Arlington. There were moon bounces, rock-climbing, obstacle courses, photo-booths, and activities for the children to engage with. The Bishop of Arlington, Michael Burbidge, presided over the mass and gave a homily stressing the need to go out and evangelize the world, starting with ourselves, and then our families and friends. There was an amazing illusionist that performed magic tricks including making a coin appear out of a lime. Overall, the kids had a lot of fun and had many opportunities to bond and strengthen their friendships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with God.



Michelle Ahn, CCD 7th grade

I thought that the BASH was a great way to express our love for the god while also having lots of fun. The lady that spoke before and after the events was really enthusiastic and I thought that she really cared deeply about God and our relationship with him. The illusionist was really cool and I liked how he connected with us while also connecting with God. The bishop that held the mass really added to the whole experience and I felt like I was really in the presence of God.



Bryan Hong, CCD 7th grade

Junior High BASH was a fun event. There were many fun activities, including moonbounces, a rock climbing wall, a dodgeball tournament, a free throw tournament, and an illusionist that performed amazing tricks. In addition, hundreds of snacks were available on tables, and they were all free to grab! I really enjoyed those activities, especially the illusionist's tricks, which blew everyone's mind. I had a really great time there and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event to anyone who wants to have fun.



Francis Choi, CCD 6th grade

The BASH was an extraordinary experience and I gained much more than I hoped. Mass was personally my favorite part because of the amazing people who spoke, such as Katie Prejean McGrady. She told us about her life and connection with God but with an added twist of humor. The mass was led by Bishop Burbidge and he also told stories that were inspiring as well as touching. Through all the experiences,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next year.



Francis Kwon, CCD 6th grade

My experience at the BASH was exciting and fun. At first, I was tired and really didn't want to go there. Once I arrived at our church, I was with my friends and everything felt better. Once I arrived at the Bishop O'Connell High School, there were a lot of games and new friends that I met. My favorite parts were going on the moon bounces, the magic tricks, and most of all taking mass there and experiencing the love of the Lord. I will go next year again and learn more about my Catholic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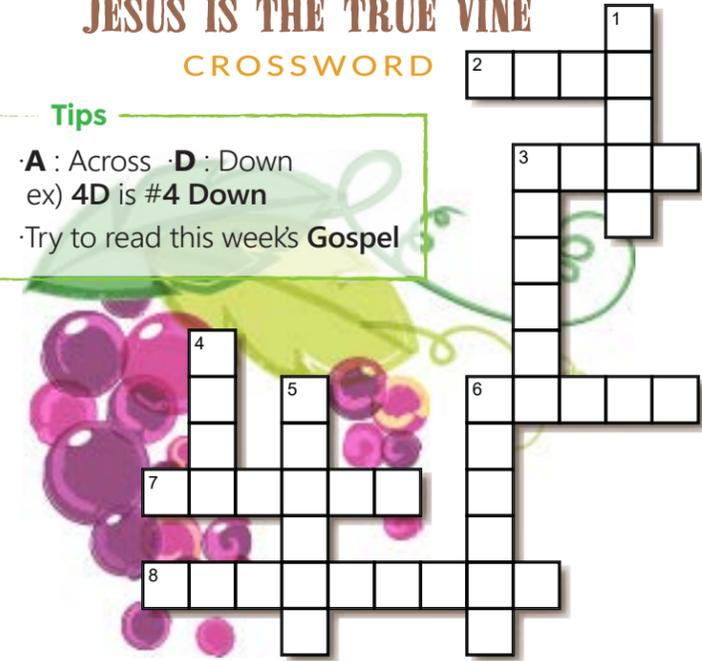
Fifth Sunday of Easter April 29, 2018

JESUS IS THE TRUE VINE

CROSSWORD

Tips

- A : Across ·D : Down
- ex) 4D is #4 Down
- Try to read this week's Gospel



Jesus said to his disciples :

- 1 " I am the true (4D), and my (6D) is the vine grower.
 - 2 He takes away every (5D) in me that does not bear (6A), and every one that does he prunes so that it (1D) more fruit.
 - 3 You are already pruned because of the (3A) that I spoke to you.
 - 4 (7A) in me, as I remain in you.
- Just as a branch cannot bear fruit on its own unless it remains o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unless you remain in me.
- 6 Anyone who does not remain in me will be thrown out like a branch and (3D) ; people will gather them and throw them into a (2A) and they will be burned.
 - 8 By this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and become my (8A)." [JN 15:1-4,6,8]

Fourth Sunday of Easter
Word Search
(Apr. 22, 2018)

Answer



W	M	E	S	T	W	B	N	V	K	N	O	W	J	P	
X	B	H	L	P	F	J	I	M	C	V	H	A	B	E	
S	R	T	Q	B	N	X	S	S	Q	B	S	H	N	M	U
G	F	A	D	S	P	E	E	H	S	Z	H	L	Q	K	
Y	L	F	C	O	N	C	E	R	N	E	D	K	T		
Z	O	D	M	J	X	J	Z	N	O	T	P	T	N	H	
V	W	I	S	B	W	E	B	B	N	L	H	Z	H	U	
F	H	I	R	E	D	Y	S	O	W	Y	E	I	E	S	
M	Z	G	C	A	T	C	H	E	S	X	R	H	F	S	
U	H	D	O	O	G	B	L	N	Y	Z	D	L	I	I	
Y	J	M	L	S	R	E	T	T	A	C	S	S	L	F	
E	N	I	F	Z	E	R	U	N	S	I	S	W	R	G	
D	E	N	D	V	Z	T	S	K	R	O	W	M	T	O	
S	I	E	X	F	Y	A	P	J	I	I	N	P	A	Z	

꼬미시움 월례회의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 4월 월례회의가 지난 15일(일) 44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묵주 기도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사업보고와 신부님 강복에 이어 차기 꼬미시움 단장 및 서기 선출이 있었으며, 단장에 정선화 루시아(현 꼬미시움 서기), 서기에 유성희 사비나(현 꼬미시움 회계보)가 참석 간부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신임 단장과 서기는 상급 단체인 레지아의 인준을 받은 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꾸리아 월례회의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은총의 모후 꾸리아

레지오 마리아의 꾸리아 4월 월례회의가 22일(일) 10시 미사 후 하상관에서 있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단장 경우진 미카엘)와 은총의 모후 꾸리아(단장 이순임 헬레나) 간부 각각 30명, 3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묵주 기도와 사업보고에 이어 공지사향으로 아태계 성지순례(5월 5일) 및 불우이웃 돕기(5월 12, 13일) 야드 세일 물품 정리 협조 요청이 있었다.

요한회 소식



“단체 체육대회에 많은 성원을”

50대 교우들의 활동 단체인 요한회(회장 박동성 미카엘)는 지난 22일(일) 월례회를 열고, 5월 6일(일)에 있을 5개 단체 체육대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성당의 활동 단체간 친목의 중요성을 인식해 체육대회가 끝난 후 나눔터에서 베드로회와 바오로회, 로고스 그리고 라파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에는 버크 노인 아파트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8년
제10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예제 18,31)

-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청주교구 성령쇄신 지도 신부)
- 일시: 5월 27일(일) 1:30pm~9:00pm
28일(월) 9:00am~5:00pm
(Memorial Weekend)
- 장소: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St. Paul Chung Korean Catholic Church
- 회비: \$30.00(5월 14일까지) / \$40.00 (15일 이후)
- 문의: 미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443) 520-4420
- 신청: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지도신부 김종성 베드로, 미 동중부 사제단
주최: 미동중부 성령쇄신 봉사회

1 유아 세례식

• 일시 : 4월 29일(일) 오후 3시, 성당

2 K of C 정기모임

• 일시 : 4월 29일(일) 오전 11:30(B-1,2)

3 주일학교 교사모임

• 일시 : 4월 29일(일) 오후 1시(교무실)

4 CYO WorkCamp 2차 점심 판매(불고기 도시락)

• 일시 : 4월 29일(일) 8시, 10시, 11:40 미사 후

5 액티브 시니어 교육 공개 강의(성 요셉 아버지 학교 주최)

• 일시 : 4월 29일(일) 오후 12시 - 오후 1시(A-1,2)
 • 주제 : 인생 2막 후반전을 준비하는 액티브 시니어 (연령에 관계없이 55세 이후 삶을 생각하는 모든 신자)
 • 문의 : 김이조 베로니카 (703)864-1236

6 병자 영성체

• 5월 4일(금) • 신청 : 조영인 형제 (703)264-0691

7 성체 강복

• 매월 첫 금요일(5월 4일) 미사 후에 "성체 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회장단 회의

• 일시 : 5월 4일(금) 오후 8:10(회의실)

9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5월 6일(일) 오전 11:30(B-1,2)

10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5월 6일(일) 오후 1시(B-1)

11 요한회 주관 5개 단체 친목 운동회

• 요한회, 베드로회, 바오로회, 로고스, 라파엘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운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대-50대 미·기혼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5월 6일(일) 오전 11:30 - 오후 4시, 체육관, 나눔터
 • 문의 : 김민태 콜롬바노 (703) 508-2077

12 부갈파 선교단 미팅

• 일시 : 5월 6일(일) 오전 11:30(하상관#10)

13 영정사진 촬영

• 하상회에서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 일시 : 4월 29일(일) / 5월 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A-3)
 • 문의 : 원응식 요셉 (703) 915-6114

14 임산부 태아 축복식

• 일시 : 5월 6일(생명주일) 10시 미사 중
 •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격려하고 어머니 몸 속에서 자라는 생명의 소중함과 조음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신청 : 4월 2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 불우이웃 돕기 야드 세일

• 일시 : 5월 12일(토), 5월 13일(일)
 • 장소 : 성당 친교실 / 주차장
 • 물품 기증 : 5월 6일까지(친교실)
 • 문의 : 김진석 마리아 (703)314-0905

16 2018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 일시 : 5월 12일(토), 5월 13일(일)
 • 장소 : 성당 친교실 / 주차장
 • 물품 기증 : 5월 6일까지(친교실)
 • 문의 : 김진석 마리아 (703)314-0905

17 제10차 동중부 성령대회

• 일시 : 5월 27일(일) 오후 1:30 - 오후 9시
 5월 28일(월) 오전 9시 - 오후 5시
 • 강사 : 박호철 베네딕토 신부(청주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 회비 : \$30 (5월14일까지), \$40 (5월15일 이후)
 • 접수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안진이 제을자아 (703)216-5792

18 K of C Car Raffle 판매

• Car Raffle 티켓 판매(Raffle 1장 \$5)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5월 27일까지)
 • 상품 : 자동차 5대, \$20,000(현금)
 • 판매된 기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 허진 (703)376-1372

19 하상 도서관 신간 서적 안내

• 기다리는 행복(이해인 수녀), 할아버지의 기도(류해옥 신부 번역), 지금 나의 삶은 아름다운가(소스텔라 수녀), 침대부터 정리하라(윌리엄 맥케이븐)
 • 8시, 10시 미사 후 도서관리자 확인 후 대출 / 반납 가능

20 부갈파 단기선교 기금 모금

• 부갈파 선교를 위한 기부금을 받습니다.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매년 후원해 주시는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교우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 5월 성모성월 맞이 성물부 세일

• 성모성월을 맞아 성물부에서 20% 세일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부활 제5주일 : 1열왕 4-6, 요한 5장**

KACM TV 하이라이트

5월 3일(목)	오후 5:00-6:00
5월 4일(금)	오후 8:00-9:00
5월 6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별 기획 / 치유** : 성모병원의 역사(1부) / 참 의술을 펼쳐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모병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특집 시리즈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4월 22일(부활 제4주일)

주일헌금	\$ 7,646.00
교무금	\$ 9,47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495.20
특별헌금	\$ 320.00
2차헌금	\$ 0.00
합계	\$ 21,936.2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신자,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양보합니다.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9:5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기도해 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구희(발버라), Thomas Byrne,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버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영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경(모니카), 김 루시아,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강애자(카타리나), 백영수(마리아), 고티스(젬마),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 ♥ **군복무자**
-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철(루시아), 임현석(아버토),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현(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 이나시오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29일(일)	부활 제5주일	K of C 정기모임(오전 11:30, B-1,2), CYO WorkCamp 점심 판매, 액티브 시니어 교육(오후 12시, A-1,2), 주일학교 교사모임(오후 1시),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30일(월)	부활 제5주간	평일 미사(오전 6시, 성당)
5월 1일(화)	부활 제5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 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바오로 기회부(오후 8시)
2일(수)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성서 통독반(오후 7:30, A-1),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3일(목)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평일 미사(오전 6시, 성당)
4일(금)	부활 제5주간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성체 강복), 회장단 회의(오후 8:10, 회의실)
5일(토)	부활 제5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하상관), 파티마 첫 토요일(오전 10시),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성지순례
5월 6일(일)	부활 제6주일	구역 임원 교육(오전 11:30, B-1,2), 부갈파 미팅(오전 11:30, 하상관#10), 성모회 회의(오후 1시), 요한회 주관 체육대회(오전 11:30 - 오후 4시, 체육관, 나눔터)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갈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일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